**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 아키타 구역 - 고다케산, 후타쓰모리산, 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 다케다이, 다나시로 습원, 도메야마산**

아키타현과 아오모리현에 걸쳐 있는 시라카미 산지의 원생지역은 130,000헥타르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중 16,971헥타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너도밤나무 원생림이며 8,000년 이상 동안 인간 활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라카미 산지’로서 1993년에 일본 최초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가고시마현 야쿠시마의 숲과 동시 등재)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는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보호되고 있는 시라카미 산지 핵심지역과 그 주변의 완충지역,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완충지역에서는 핵심지역과 동일한 동식물과 지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지역의 약 4분의 1은 아키타현에 속해 있으며, 아오모리현 쪽보다 출입이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생림의 다양한 생태계의 중심적인 존재는 너도밤나무입니다. 핵심종(keystone species)인 너도밤나무는 30m 이상 자라며, 수 세기 동안 살 수 있습니다. 현(県) 북부의 일본해(한국 동해)와 접하고 있는 대설 지대에서 너도밤나무는 다른 수종에 비해 자연적으로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너도밤나무는 굉장히 유연해서 다른 나무라면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힐 만한 폭설로 인한 눈의 무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숲의 대부분을 너도밤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밤나무는 동물들이 먹는 열매를 맺고, 너도밤나무의 커다란 잎은 숲을 시원하게 유지해 줍니다. 낙엽은 숲 바닥의 영양분이 풍부한 부식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표면의 부엽토는 숲 바닥에서 풀을 길러내고, 너도밤나무 뿌리와 함께 산의 저수량을 조절해 가뭄과 홍수, 산사태를 막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 너도밤나무 원생림은 이 나라의 대부분을 뒤덮고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너도밤나무의 생태학적 중요성이 이해되기 전에는 공예품 재료나 건축 목재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밤나무는 거의 쓸모없는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너도밤나무’를 적을 때 사용되는 한자는 ‘나무(木)’와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무(無)’를 조합한 글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대부분 너도밤나무는 20세기 후반에 벌목되었으며, 벌목 후 그 땅에는 목재로 사용되는 삼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다행히 시라카미 산지는 외진 곳에 있고 산의 경사도 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벌목을 피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시라카미 산지의 숲에는 너도밤나무 외에도 약 100종의 수목과 수천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 일본원숭이, 일본산양(영양)을 포함한 35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습니다. 일본산양은 사슴을 닮았으며, 털이 덥수룩한 솟과 동물입니다. 그 밖에도 파충류 9종, 양서류 13종, 조류 90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딱따구리의 일종인 까막딱따구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라카미 산지에는 산허리의 급경사면으로 이루어진 깊은 계곡이 있는데, 대부분의 계곡은 물살이 빠른 강과 폭포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후지사토 고마가타케산(해발고도 1,158m), 후타쓰모리산(해발고도 1,086m), 고다케산(해발고도 1,042m)은 이 지역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산들입니다.

도메야마산(해발고도 180m)은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산 중 하나입니다. 도메야마산의 ‘도메’는 ‘멈추다’ 또는 ‘금지하다’를 의미하며, 300여 년 전 도메야마산의 사면에서는 벌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너도밤나무 숲이 지역이 지닌 농업용수 저장 기능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너도밤나무와 물의 연관성은 근대에 와서 스바리 댐 근처의 너도밤나무가 벌목되었을 때 스바리호의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재인식되었습니다. 이 일은 시라카미의 숲을 보호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